

군지역 도시생활환경지표를 활용한 생활의 질 비교연구

-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

A Comparative Study the Quality of Life using the Life Environment Indicator

- Focused on the Jeonnam Area -

김재원*

Kim, Jai-Won

Abstract

Urban planning is the task to explore measures for bringing order to the change in urban space of future predicted in relation to the size and purpose of the land and a variety of facilities in cities in order to present the environment that can promote the qualitative improvement of activities of residents, ensure orderly urban space of future, and create appropriate urban environment which meets the desire of citizens by anticipating the urban development on the basis of overall activities such as politics, economics, culture, etc, so that the improvement in urban life can be accomplished ultimately. Therefore, this study attempted to examine current conditions information necessary for establishing policies pursuant to the national land development plan and regional development, as well as respond to the needs of urban residents who need the improvement of settlement environment including various amenities for the convenience of life, by shifting away from the macroscopic and one-size-fits top-down approach of development so far and aiming a balanced development of national land in quest for welfare society and by utilizing the urban index as the basic prior task necessary for seeking the shift in the direction of policies and setting the direction for policies on the basis of the top-down development approach which suits the anticipation and hope of local residents as the subject of development, considering the growing interest in the shift in the policies for regional development in this era of localization.

Techniques for urban planning need to be applied, such as the prior planning and the following development, along with the support at the policy level for achieving the improvement in the related sector, in order to induce continuous urban development based on the establishment of healthy and sound settlement environment, and furthermore, the efforts must be driven forward to improve the urban settlement environment while the urban planning and policies are established.

Keyword : Quality of Life, Zhengzhou Living Environment, Urban Development, The Life Environment Indicator

주요어 : 생활의 질, 정주환경개선, 도시개발, 도시생활환경지표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도시계획은 궁극적으로 도시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정치·경제·문화 등의 제활동을 토대로 도시의 발전을 전망하여 시민들의 욕구에 부응하며, 도시 장래의 질서 있는 공간과 주민활동의 질적향상을 부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제안하고, 적정 도시환경을 창출하기 위하여 도시내의 토지 및 각종시설의 규모와 용도에 대하여 질서를 부여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사전계획이다.

즉, 도시내의 시설물 용도를 장래 특정 시기를 목표로 계획된 기준에 맞추어 공간적으로 배분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그러므로 도시계획은 인간의 합리성을 추구하고 실현가능성에 중점을 두어 현재를 토대로 미래에 대해 예상되는 사항을 과학적으로 예측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도시기반시설의 공급 및 생활환경 정비 수준은 매우 열악한 실정에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그간의 도시화가 상당한 수준이 도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기반시설의 공급 및 생활환경정비 수준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며, 이러한 현상은 그간의 도시화가 인구적 도시화와 같이 양적 팽창에 급급한 나머지 물리적 측면의 도시계획 시설확충이나 도시생활 환경의 질적 제고 등 도시의 순기능을 간과하여 비롯된 결과도 적지 않을 것이다. 특히, 지방화 시대에 높아지는 주민욕구를 충족해야 하는 자치단체로서는 자치 행정에 대한 능력제고가 필수적이어서 많은 고민과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하겠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국토공간개발은 대도시 중심의 성장거점개발 위주로 정책이 전개되어 왔다. 즉, 자원의 한정성과 투자의 경제적 효율성을 중시하는 불균형성장파 비교우위 등의 이론에 바탕을 둔 하향식 개발접근방식이 채택되어 개발의 잠재력이 상대적으로 큰 공업부문과 도시 및 지역에서 선별적으로 우선투자가 되어온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거시적이고 획일적인 하향식

* 정희원, 세한대학교 복지경영학과 교수, 공학박사
(교신저자 : kjwdb@hanmail.net)

개발접근방식에서 벗어나, 복지사회를 지향한 균형있는 국토개발을 목표로 하고 지역주민의 여망에 부합하는 하향식 개발접근방식에서의 정책방향전환의 모색 및 정립에 필요한 기초적 선행 작업으로 도시의 지표를 활용하여 정주환경실태를 파악하고 각종 생활편의시설을 포함한 정주생활환경의 개선이 필요한 도시민의 요구에 부응함과 더불어 도시 및 지역개발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적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에서 다루어지는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군지역의 행정중심 지역인 전라남도의 군청소재지가 위치해 있는 17개 읍급 도시(국토계획법의 용도지역상 도시지역)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내용적 범위에 있어서 2014년의 도시연감 및 통계연보에 따라 크게 유통금융, 공공행정, 교육,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정보통신, 문화 및 위락 등 총 6개의 도시생활지표를 설정하여 정주환경을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첫째, 각 도시별 차이점을 알아보기 위해 표준점수법(Z-Score)을 사용하였다. 이 방법은 분석대상이 속해있는 모집단의 어떤 사항에 관한 상태를 진단대상의 모집단에서의 위상을 통계학적 방법으로 판별할 수 있다. 즉 산술평균치와 표준편차를 단위로 하여 진단대상도시의 모집단속에서의 위상을 계량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렇게 표준편차를 떨어져 있음의 측정단위로 하는 방법을 표준점수법이라고 하고 「 $(\text{측정치} - \text{측정치의 평균치}) / \text{표준편차} = \text{표준점수}$ 」로 정의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개 항목별 위상의 상호비교가 가능해진다.

산출된 표준점수는 일련의 조작과정을 거쳐 각 도시별로 정주환경 수준에 대한 서열 및 등급화 정립에 이용하였는데, 특히 등급의 결정은 정규분포에 의한 방법을 활용한다. 즉, 도시생활환경의 수준을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정규곡선으로 나타내고 이를 비교 분석하는 과정을 통하여 사례 도시들간의 생활수준 격차와 도시별로 개선되어야 할 생활환경부문을 파악하였다.

둘째, 산출된 도시별 정주환경이 인구와 어떤 상관관계(correlation coefficients)가 있을 것으로 보고 상관성 분석을 하였으며 인구와 각 요인별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인구와 정주환경에 대한 특징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해당연도의 자료를 모집하기 위해 한국도시연감을 비롯해 각 시 통계연보 및 기타 관 통계연보를 이용하였으며, 자료의 분석방법은 통계 패키지 SPSS 18.0을 이용하였다.

2. 이론적 고찰

2.1 도시생활환경지표 및 정주환경

(1) 도시생활환경지표

인간은 환경적 조건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보다 나은 생활환경속에서 삶을 영위하려고 한다. 인간의 보나나

삶이란 측면에서 보면 경제개발은 수단에 불과하며 인간의 건강이나 안전·복지 등을 도모하는 생활환경개선은 인간생활의 최종목표라고 할 수 있다(정준금 외, 2008).

여기에서의 생활환경(living environment for living)의 개념을 정의하면 첫째, 경제적 부를 획득하기 위하여 생산 활동에 참여하는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 접하는 일체의 물리적 환경을 의미하고, 둘째, 인간의 주생활을 유지해 주고 있는 유형무형의 자연적 조건·경제적 조건·물리적 조건 및 사회적 조건을 망라하는 제조조건을 의미하며, 셋째, 인간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만들어 낸 필요불가결한 물리적 상황의 결합 또는 행렬을 의미하고, 넷째, 도시생활환경은 생활환경시설을 구성요소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박준금, 2004).

이에 따라 도시생활지표의 의미를 살펴보면, 도시생활지표란 공익성과 공용성을 가지는 도시의 공적시설로서 포괄적 의미로는 도시계획의 대상이 되는 모든 도시계획시설을 포함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공공서비스, 생활편의시설, 공공재 등과 같다.

한편 도시생활지표는 중앙 및 지방정부가 주체가 되어 계획·건설·관리가 이루어지는 시설을 통칭한다고 할 수 있다. 즉, 공공재로서의 도시공공편의시설은 도시행정서비스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서 읍면동과 같은 우체국, 경찰서, 소방서, 학교, 공원, 도서관, 폐기물처리장 등과 공공기관에 의해 추진되는 혐오시설이 이에 포함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도시계획 관련법은 도시기본시설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한 항목을 명목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도시계획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과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세분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크게 7개 시설로서,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 및 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재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로 분류되며 도시계획시설은 총 53개다.

도시계획분야에서는 도시계획지표와 도시계획시설과의 용어의 차이를 명확히 단정할 수는 없으나 도시계획시설은 전문적이며 법적인 용어라 인식할 때, 본 연구의 변수들은 도시계획시설 중 선호시설인 동시에 각각의 도시생활지표라 할 수 있다.

(2) 정주환경

정주환경은 곧 도시의 생활조건인 생활환경의 의미이고 도시생활의 질과 유사한 개념으로 인식하고 접근할 수 있는데, 이는 도시의 매력도라는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다. 이들 매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Table 1. Classification and content of urban charm

I. 경제적 매력 (수단적 매력)	1.개인 -취업의 기회	- 소득상의 기회 - 입성출세의 기회
	2.기업-경제상의 매력 (자본종합, 권력종합, 시장종합, 정보종합)	
II. 비경제적 매력 (목적적 매력)	1.생활적매력	- 거주지매력(상하수도, 가스, 도로, 공원)
		- 생활의편리(교통, 시장, 병원)
		- 여가의매력(여가시간, 오락시설)
	2.문화적매력	- 문화생활(예술, 지식, 창조적생활)
		- 취업기회(교육시설)
		- 유행결함(유행, 첨단생활)
	3.사회적매력	- 사교의기회 (취미, 문화클럽조직, 사교 시설, 회의의 기회)
		- 연애, 결혼의 기회
		- 사회참가의매력 (사회봉사, 사회사업, 교회)
		- 인간해방 (자연, 역사, 전통, 자유평등성, 권리의 주장)

생활환경의 척도인 삶의 질은 삶의 만족이나 자신의 삶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감정, 구체적으로는 결혼만족, 직업만족, 공동체만족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요소들로 구성된 주관적인 정신의 상태로서 각 요소들은 서로 독립적일 수 있다는 다차원적 개념을 주장한다(신도철, 1981).

반면에 일부 학자들은 삶의 질의 구성요소들 간의 높은 상관관계를 강조하면서 그 단일 차원성을 주장하는데, 그들은 상관분석 등의 방법으로 삶의 질의 단일 차원적인 개념을 구성할 수 있다고 보고 삶의 질에 관한 기존의 다양한 척도들을 분석하기도 하였다(최준호, 2001).

국외의 연구자들에 의하면, Schneider(1976)의 경우 개인의 삶의 만족도는 자신이 현재 안고 있는 도시의 물리적인 형태와는 무관하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면서 삶의 질이란 개인이나 사회조직이 경험하는 직접적인 사회복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국내의 연구자인 신도철(1981)은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인 측면인 경험자의 만족도를 강조하면서 삶의 질은 사람이 추구하는 가치와 목표의 성취에서 생기는 물리적 상태이며 나아가 여러 가지 생활목표와 가치 중에서 복지와 즐거움이 대다수 사람들의 생활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우선 삶의 질을 객관적인 차원과 주관적인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객관적인 차원은 “특정한 사회의 객관적인 삶의 조건과 환경”을 포괄한다. 예를 들어 경제적인 생활수준이나 평균 수명, 직업 기회와 직업선택의 다양성, 교육기회와 교육 여건, 범죄율이나 교통사고율, 문화적인 시설, 의료보장정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삶의 조건들은 사회 구성원들의 삶에 직접 혹은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에 주관적인 차원은 개인의 삶이 자신의 명시적 혹은 묵시적이고 내면적인 기대 수준을 충족시키고 있는가 하는 인지의 정도를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정의는 똑같은 객관적인 조건에 대해서도 개인이나 집단에 따라 만족하는 정도가 다르다는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일부 학자들은 객관적인

지표와 주관적인 지표 사이의 통계적 상관관계가 높지 않을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객관적인 조건이 더 좋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자신의 생활조건에 대해 더 높은 불만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지표와 주관적인 지표는 때때로 부의 상관관계를 갖기도 한다는 점에서 삶의 질은 전적으로 주관적인 현상이라고 주장한다(임희섭, 1996).

일반적으로 삶의 질이란 주민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 대해 공동으로 경험하는 특징과 이의 주관적 평가에 의해 구성되는 것으로 살기 적합한 환경을 의미한다고 가정할 때 생활의 질은 지역이 제공하는 생활의 적합성이라고 잠정적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다양한 삶의 질 지표 가운데서 본 연구문제와 목적에 적합하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객관적인 삶의 지표인 정주환경에 대해서 개념적 틀을 살펴보고자 한다.

정주환경이란 이와 같이 여러 측면에서 파악될 수 있겠지만, 인간의 삶에 대한 의미가 강조되는 살기좋은 도시의 형성 즉, 도시가 갖는 특수성과 도시가 갖는 자체적 매력이 근간이 된 살기좋은 도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 도시 생활의 여러 측면들을 추상적으로 표현한 개념이라 하겠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삶의 질은 객관적인 차원과 주관적인 차원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본 연구에 부합하는 것은 삶의 질의 객관적인 차원이라 하겠다. 삶의 질의 객관적인 차원은 ‘특정한 사회의 객관적인 삶의 조건과 환경’을 포괄하는 것으로써 객관적인 삶의 조건들은 분명히 그 사회 구성원들의 삶에 직접 혹은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3) 정주환경 구성요소 및 체계

정주환경은 삶에 대한 개인의 객관적인 사실과 이러한 요인들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인지라는 이분법적인 범주로 구분하는데, 이처럼 흔히 사용되는 삶의 질이라는 개념은 정주환경과 그 의미를 같이하는 것으로 단순한 물질적 풍요 이상의 중요한 삶의 차원이 존재한다는 것을 함축한다.

정주환경을 측정하기 위한 도시생활지표체계 중 객관적인 지표들은 객관적으로 관찰 가능한 외재적인 준거에 의해 구성되며, 주관적인 지표는 내재적인 준거에 의한 지표체계와 외재적인 준거에 의한 지표체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객관적 지표는 주로 개인의 기대 또는 열망수준을 기준으로 한 상대적 만족 또는 불만을 측정하는 지표체계로서 Chubon의 생활상태 조사, Frisch의 삶의 질 조사, Chibnall과 Trait의 삶의 질 척도, Pavot와 Diener의 생활만족 척도 등이 여기에 속한다(임희섭, 1996).

주관적 지표는 자기 자신의 기대보다는 외재적 준거 집단에 속한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한 상대적 만족 또는 불만을 측정하는 지표체계의 개발도 가능하다. 그와 같은 예로서는 직접 삶의 질을 측정하는 척도는 아니지만, 사회학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상대적 박탈감의 측정방법이 원용될 수 있을 것이다(Feierabend et al, 1971; Gurr, 1971).

그러나 정주환경에 대한 다양한 가정과 접근에도 불구하고 삶의 질을 “객관적인 삶의 조건에 대한 주관적으로 인지된 만족 또는 불만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규정한다면, 객관적인 지표와 주관적인 지표는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나 하나의 지표체계속에 통합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사실상 우리나라를 비롯해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용하고 있는 사회지표체계들은 객관적 지표들과 주관적 지표들을 혼합해서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임희섭, 1996).

이러한 상황에서 바람직한 통합적 지표체계가 되기 위해서는 삶의 조건으로서의 객관적인 지표들과 인지된 평가로서의 주관적인 지표들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보다 체계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특히 도시생활환경체제 확립에 관한 과제가 도시개발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제공하며 도시의 자연적 환경이나 역사적 조건, 도시에서 생산되는 자원이나 개발되는 기술, 또는 각 도시에 설치되는 제반시설에 따라서 생활환경수준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국민복지향상을 목표로 하여 수립되는 사회개발정책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으므로 체계화된 지표체계의 수립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정주환경체제는 주로 도시생활체계에 의하여 구성되는 도시생활환경의 측정이 보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물론이고 도시생활환경의 측정체계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본다. 그 이유는 도시생활환경의 측정체계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인 정주체제는 도시민의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는 포괄적인 생활조건인 체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2 도시생활환경지표 및 정주환경측정의 연구동향

생활의 질이란 지역사회 요소와 욕구의 실질적 만족 정도를 의미하는 생활수준으로서 복지에 대한 포괄적인 표현으로 보며, 일반적으로 보건·교육·위생·의료·서비스 등과 같은 불안정한 공공재의 양과 분배측면을 강조한 개념으로 보기도 한다.

생활의 질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QOL연구란 곧 주관적 사회지표연구라고 생각하게 된다. 이것은 개인의 외적인 요소로부터 도출된 생활의 질과 개인 스스로의 인식에서 도출된 생활의 질 간에는 차이가 있다는 사실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주관적 지표가 생활의 질을 측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지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도시공간에 초점을 둔 생활의 질 지표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았는데 1980년에 “한국 도시에 있어서 생활의 질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이 나왔고 1981년에는 주성분분석, 인자분석법, 표준득점법 등의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20개 지표를 가지고 35개 도시의 생활환경의 차이를 고찰한 논문이 나왔다.

이러한 연구과정속에서 1981년에는 생활의 질 연구동향에 하나의 전환점이 된 “한국인의 삶의 질 대 연구”가

발표됨에 따라 주관적 지표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이 논문에서 삶의 질이란 본인이 직접 체험하고 느끼고 있는 것이므로 객관적 지표만으로는 생활의 질을 적절히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주관적 지표만을 사용하여 삶의 질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1981년의 주관적 지표를 활용한 연구 이후 주춤하고 있던 주관적 지표를 통한 삶의 질 연구가 1986년 좀더 발전적으로 연구·분석되었다. 이 연구는 서울시민 10,000명을 대상으로 가정생활, 주거생활 및 정부와의 관계 등 12개 영역별 관심사항을 설문문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시민의 주관적 만족도 및 행복감을 연구하였다. 끝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도 도시생활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를 구분·선정하여 총 27개 지표를 가지고 31개 도시를 측정하였고 특히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을 적용하여 연구하였다.

국외의 경우 Liu(1976)는 미국의 24개 SMSA를 대상으로 123개의 삶의 질 변수를 5가지(경제성, 정치성, 환경성, 보건·교육성, 사회성)의 객관적인 지표로 요인분석을 시행하였다. 또한 Cantrill and Roll(1972)은 사회지표와 같은 통계적 방법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정주환경의 변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분석적 체계개발을 위해 18개 범주의 22개 지표를 설정하였다.

국내 행정기관에서의 정주환경 분석을 위한 지표 선정의 선행 사례를 보면, 안행부에서는 안전성, 건강성, 능률성, 쾌적성의 4개 부문 16개 지표를 선정하여 분류하였다.

3. 생활의 질 분석을 위한 지표의 구성

3.1 도시생활환경지표의 구성

도시개발정책은 첫째, 도시와 농촌을 포함한 인구수용 지역간의 상호의존성에 입각한 새로운 도시체계의 정립, 둘째, 도시 인구를 유지·부양할 도시산업기반의 확충, 셋째 토지이용과 교통망계획을 중심으로 한 도시내부구조의 정립과 정비, 넷째, 도시생활기반의 정비·확충을 통한 도시생활질의 향상과 도시생활 환경체제의 확립을 도모하는 경향으로 발전될 전망이다.

이상의 주요 과제 중 도시 생활환경체제 확립에 관한 과제는 도시발전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도시생활환경의 측정체제는 환경 및 생활체계에 의하여 성립될 수 있다. 그러나 환경체계에 의한 것보다는 생활체계에 의한 것이 보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물론 도시생활환경의 측정체제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본다(정준금 외, 2008). 여기에서의 환경체제는 도시활동(생활행위, 생산활동, 건설활동), 도시시설(건설, 유지관리, 규제 등), 자연(토지, 자연자원 등)의 3자가 관련되어 형성되는 서비스의 형태로 결정된다. 이 환경체제는 생활환경과 관련되어질 때 생활환경체제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것은

첫째, 자연환경이 도시생활에 마이너스의 효용을 가져다주는 생활환경체계인 자연-마이너스형, 둘째, 도시활동에 기인한 배출물과 현상이 자연환경을 매개로 해서 도시활동에 마이너스 효용을 가져다주는 생활환경체계인 인공·자연-마이너스형, 셋째 도시활동이 마이너스 효용을 가져다주는 생활환경체계인 인공-마이너스형, 넷째, 도시활동이 도시시설을 매개로 해서 도시활동에 플러스의 효용을 가져다주는 생활환경체계인 인공-플러스형, 다섯째, 자연환경과 인공시설이 상호보완하여 도시활동에 플러스의 효용을 가져다주는 생활환경체계인 자연-플러스형으로 구분된다.

도시생활환경체계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인 생활체계는 도시민의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는 포괄적인 생활조건 체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포괄적인 생활조건 체계는 도시민이 그 도시에 살면서 행복감과 만족감을 느끼게 되는 생활영역 전반에 걸친 범위를 대상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논자에 따라서 달리 설명되기도 한다. 그 범위를 나누어 보면 ① 자연 및 인구환경부문, ② 거주환경부문, ③ 보건사회부문, ④ 교육문화부문, ⑤ 경제부문, ⑥ 공공안전부문에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는바,

첫째, 도시에 있어서 자연은 도시가 위치한 곳의 지표공간·암석·지질 및 지형·물·생물·대기 및 기후 등을 말한다. 이것은 여러 가지 형태로 도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간접적으로는 도시활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신도철, 1981).

한편 도시에 있어서 인구는 시간적 또는 공간적으로 집적되어 있으며 그 증가율이 높고 이동성 및 유동성도 높은 것을 그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도시의 형성 및 발전과 형태 등을 분석하는 경우에는 인구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한 접근법이 된다.

둘째, 거주환경이란 인간이 주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유·무형의 모든 외부적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주거환경은 적당한 일조·통풍·지형의 변화 등과 같은 자연적 조건인 자연환경을 제외한 사회적 조건 중에서 주택을 포함한 교통, 정보, 통신, 상·하수도, 청소 등과 같은 생활환경 시설과 그의 적절한 운영으로 인하여 도시민의 생활에 플러스 및 마이너스의 영향을 주는 것들로 구성된다(최준호, 2001).

셋째, 도시에 있어서 보건사회부문은 건강한 도시생활을 실현시킬 수 있는 부문으로 인식되는데 이러한 건강한 도시생활을 실현시키는데 필요한 조건은 크게 두가지로 나타낼 수 있다. 첫째로는 주로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을 돌보아 주는 보건과 주로 건강생활에 필요한 환경조건을 정비하는 것을 의미하는 위생을 포괄하는 보건위생적 조건이고, 또 하나는 현대 사회의 성장발전에 따라 양적으로 그리고 질적으로 나타나는 사회 및 복지에 관한 제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사회적 조건이라 할 수 있다(박준기, 2004).

넷째, 도시에 있어서 교육문화부문이 갖는 의미는 도시가 갖는 일반적 특징인 집중과 집적이 있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도시에 있어서의 시설의 집적을 근거로 하여 교육문화부문의 관심영역을 구분할 경우 교육시설의 집중과 집적을 나타내는 교육분야와 문화시설의 집중과 집

적을 나타내는 문화분야로 대변할 수 있다(최준호, 2001).

다섯째, 경제부문은 지방 정부의 안정 및 지역 주민의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는 부문이라 할 수 있다. 지자체의 운영을 위한 지방세금, 인구 및 지역경제 등의 생활여건, 주민소득, 공공투자 등이 있다(정준금 외, 2008).

여섯째, 도시의 공공안전은 도시의 안전성과 건강성을 보장하는 부문이라 할 수 있다.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란 도시민들이 정신적 불안과 재산·생명·시설 등의 피해로부터 최대한 보호되어 있는 곳을 의미한다(정준금 외, 2008). 그리고 생활환경을 구성하는 영역을 중심으로 한 생활 항목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Table 2. Urban living environment topics

생활환경영역	자연 및 인구환경	주거환경	보건사회	교육문화	경제	공공안전
생활환경항목	토지 오염 기후 인구	주택 교통 공급처리 시설	보건위생 사회	교육 문화	주민소득 교통 공공투자	경찰 보안

3.2 도시생활환경지표의 선정

(1) 측정대상요소

도시는 도시민이 편의와 능률적인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환경시설이 정비되어야 한다. 따라서 도시생활환경의 목표는 도시민이 도시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영위하는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도시생활환경을 나타내는 구성요소를 규정한다는 것은 각 도시에 따라 그 유형, 특징 및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분야에서 다각적인 연구와 분석이 있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취득이 가능한 38개 지표를 도시생활환경 지표로 설정하여 거주환경을 분석하였다.

Table 3. Urban Living Environment Indicators

기능별	시 설
1. 유통금융	은행, 새마을금고, 시장, 대형점
2. 공공행정	민사무소, 경찰서, 지파출소, 소방서, 소방파출소, 세무서, 우체국관서, 등기소
3. 교육	대학교, 전문대학,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4.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종합병원, 치과, 약국, 의원, 보건소,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여성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5. 정보통신	우체국, 전화국, 신문사, 방송국
6. 문화 및 오락	도서관, 박물관, 극장, 공연장, 볼링장, 골프연습장, 실내체육관, 종합경기장

* 자료 : 각 시군 통계연보

(2) 도시생활환경의 성분분석

각각의 측정부문을 나타내는 지표구성 체계에 관한 부문모형을 정립한 후 17개 읍급 도시에 대해 선정된 38개 분석지표로 성분분석과 도시의 순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몇 단계의 작업이 요구되는데 그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단계로 38개 지표와 17개 도시의 자료를 종합·정리하여 각각의 도시에 대한 6개의 총괄적인 표준점수(Z-score)를 계산하였다. 여기서 각 지표의 가중치는 이

에 대한 일반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동등하게 보였다. 따라서 각각 도시의 구성요소별 지표는 각 구성요소의 Z-score를 산술평균하여 구하였다.

2단계로 구성요소별 도시환경지표분석으로 기본자료를 Z-score로 표준화하여 얻어진 각 도시간 도시환경지표 지수는 각 항에서 구성요소별로 구하였다.

3단계로 이를 토대로 각 도시간 정주환경 수준을 구성요소별로 5개 등급 즉, A(Outstanding), B(Excellent), C(Good), D(Adequate), E(Substandard)로 구분하여 비교하였다.

이때의 산식은 다음과 같다.

A(최우수 : Outstanding) : $A \geq X + SD$

B(우수 : Excellent) : $X + 0.28SD \leq B \leq X + SD$

C(양호 : Good) : $X - 0.28SD < C < X + 0.28SD$

D(보통 : Adequate) : $X - SD < D \leq X - 0.28SD$

E(불량 : Substandard) : $E \leq X - SD$

4단계로 각 구성요소별로 도시생활환경 수준이 가장 높은 도시부터 순위를 매겨봄으로써 각 도시 간의 정주환경수준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가를 파악하였다.

4. 도시생활환경지표를 활용한 정주환경분석

4.1 인구나 도시생활지표별 상관관계 분석

상관관계 분석(correlation analysis)은 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한 통계기법으로 상관성의 방향과 정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전자는 정의 관계인 경우 독립변수 값이 증가하면 종속변수 값도 증가하는 관계를 의미하고 부의 관계이면 독립변수 값이 증가할수록 종속변수 값은 감소하는 관계를 의미한다. 후자는 특정변수의 분산 중에서 다른 변수와 같이 변화하는 분산의 정도에 따라 좌우되는데, 공통으로 변하는 부분이 적을수록 상관관계는 낮아지며, 공통부분이 완전히 일치되면 상관관계는 1이 된다.

상관관계가 어느 정도인가를 나타내주는 것이 상관계수인데, 특정 상관계수 r값에 대한 상관관계의 크기를 해석하는 데는 여러 견해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Guilford의 해석기준을 이용하였다. 즉, 상관계수가 0.90이상인 경우를 매우 높은 상관관계 혹은 매우 신뢰할 만한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Table 4. Guilford analysis based on the correlation value of r

상관계수 범위	상관계수 해석
상관계수 r 값이 0.20 미만	거의 무시할만한 상관관계
상관계수 r 값이 0.20 이상부터 0.40 미만	낮은 상관관계
상관계수 r 값이 0.40 이상부터 0.70 미만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
상관계수 r 값이 0.70 이상부터 0.90 미만	높은 상관관계, 뚜렷한 상관관계
상관계수 r 값이 0.90 이상	매우 높은 상관관계, 매우 신뢰할만한 상관관계

인구와 도시생활지표들간의 상관관계를 실행한 결과, 인구와의 관계가 매우 신뢰할 정도의 매우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 요인은 없고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는 교육(0.894),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0.872), 유통금융(0.833)순으로 나타났다.

Table 5. Population and factors specific correlation and significance level

구분	유통 금융	공공 행정	교육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정보 통신	문화 위탁
pearson 상관계수	0.833**	0.429	0.894**	0.872**	0.309	0.816**
유의확률 (양쪽)	0.000	0.086	0.000	0.000	0.228	0.000

4.2 정주환경분석

(1) 정규분포와 표준점수

연속적인 성질을 갖는 무게 또는 길이에 관한 변수치의 출현 빈도는 분포곡선의 중심(평균) 부근에 가장 많고 그로부터 멀어질수록 서서히 적어지는 좌우대칭의 곡선을 이루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도수분포곡선이 평균을 중앙으로하여 좌우대칭인 종 모양을 이루는 분포의 이론적 확률분포를 정규분포(Normal distribution) 또는 가우스(Gaussian)분포라고 한다.

한편 표준정규분포표는 표준정규분포에 관한 누적확률치를 기입한 것으로 표준정규분포표를 사용하면 변수치가 주어질 때 확률치를 구할 수 있고, 거꾸로 확률치가 주어질 때 변수치를 구할 수 있는데, 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면 평균 u를 사이에 두고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간의 비율을 고려해야 하며 그 사이에 68.2%, -2σ 와 2σ 사이에 95.44%, -3σ 와 3σ 사이에 99.73%의 변수가 각각 포함된다.

본 절에 앞서 분석에 투입될 변수의 선정 과정에서 채택된 6개 요인의 독립변수를 사용하여 객관적인 도시생활환경 지표의 분포상태를 통해 도시간 정주환경의 상대적 수준을 비교 평가하였다. 즉, 요인별로 조사된 38개 지표를 표준점수를 사용하여 표준화하고 그 결과로써 부문별 순위 및 전체적인 종합순위를 결정하였다. 표준편차, 분산, 변이계수가 전체자료들의 산포의 정도를 표현하는 통계치인데 반하여 표준점수는 개별자료의 상대적인 분포위치를 나타내는 통계치이다. 즉 표준점수 또는 표준단위라 부르는 Z값은 주어진 변수 x를 평균 0 과 분산 1을 나타내는 정규분포상의 Z로 변환하여 변수를 표준화하여 우리들이 어떤 도시나 지역을 분석할 때에 사용하는 인구, 인구밀도, 소득, 거리 등의 상이한 측정단위를 상호 비교 평가가 가능한 표준화 값으로 변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표준점수로 환산할 값을 u_i 로, 평균을 u, 그리고 표준편차를 s라 할 때, 표준점수 Zi는 다음의 공식에 따라 산출된다.(남궁근, 1994)

$$Z = \frac{(u - u_i)}{s} \text{-----} \text{(식 4-1)}$$

Table 6. Interpretation criteria for inter-city levels compared to sedentary environment

구분	정주환경수준해석기준	
	기 준	해석 및 환경
a 등급	$avg + std \leq (\text{표준점수})$	매우좋은 수준의 정주환경 상태 (Outstanding)
b 등급	$avg + 0.28std \leq (\text{표준점수}) < avg + std$	좋은 수준의 정주환경 상태 (Excellent)
c 등급	$avg - 0.28std \leq (\text{표준점수}) < avg + 0.28std$	양호한 수준의 정주환경 상태 (Good)
d 등급	$avg - std \leq (\text{표준점수}) < avg - 0.28std$	일반적 수준의 정주환경 상태 (Adequate)
e 등급	$(\text{표준점수}) < avg - std$	좋지 않은 수준의 정주환경 상태 (Substandard)

각각의 정주환경 측정부문을 나타내는 지표구성 체계에 관한 부문 요인을 정립한 후, 17개 도시에 대해 선정된 40개 분석지표로 성분분석과 도시의 순위를 분석하였는데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40개 변수 × 17개 도시자료를 종합하고 정리하여 해당 도시별 지표의 표준점수를 계산하고, 요인별 정주환경 분석으로 기본 자료를 이용해서 얻어진 표준점수를 사례 도시별로 혹은 정주환경 요인별 지수로 정리하였다. 또한 앞 단계의 도시별 정주환경 수준을 표준점수의 백분율 분포에 바탕을 두고 구성요소별로 5개 등급, 즉 1등급(outstanding), 2등급(excellent), 3등급(good), 4등급(adequate), 5등급(substandard)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구성요소별로 정주환경 수준이 가장 높은 도시로부터 순위를 결정할 수 해당 도시들 간의 정주환경 수준이 어느정도인가를 파악하였다.

이때 도출된 표준점수를 이용한 도시별 항목별 위상의 상호비교는 선정된 요인별 지표를 평균(avg)과 표준편차(std)를 이용하여 서열 및 등급화하였다.

(2) 요인별 정주환경 실태

본 절에서는 앞서 제시한 정주환경 수준 비교를 위한 해석 기준을 이용하여 정주환경 분석을 위해 선정된 6개 요인을 등급화하여 서열을 매겼다.

등급과 서열은 연구의 내용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양적인 지표만을 이용한 수치로 도시의 질적 정주환경을 포함한 정확한 수치라고 보기 힘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객관적 지표를 사용하여 산출한 분석이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타당성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본다.

다음은 6개 요인별로 정주환경 수준인 등급과 서열을 정리한 것이다.

Table 7. Distribution standard scores of the financial sector

도시	유통금융	등급	순위
담양	-0.31538	d	11
곡성	-1.00717	e	15
구례	-1.64132	e	17
고흥	1.41411	a	2
보성	0.66467	b	4
화순	-0.02713	c	9
장흥	0.66467	b	4
강진	-0.25773	c	10
해남	2.04826	a	1
영암	0.08817	c	8
무안	0.66467	b	4
함평	-0.71892	e	13
영광	1.01056	a	3
장성	-0.60363	e	12
완도	0.26112	c	7
진도	-1.35307	e	16
신안	-0.89187	e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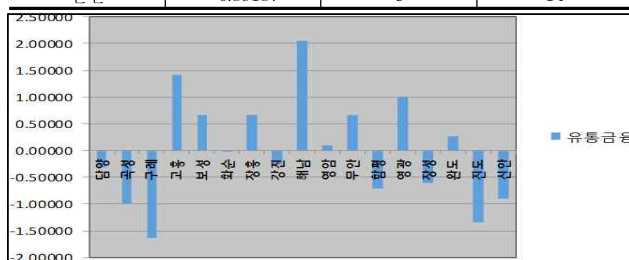


Figure 1. Distribution of the financial sector Ranking

첫째, 은행, 새마을금고, 시장, 대형점으로 구성되어 있는 유통금융 요인의 정주환경 분석결과 매우 좋은 수준으로 나타난 a 등급에는 해남, 고흥, 영광, 좋은 수준을 보이는 b 등급에는 보성, 무안, 장흥, 양호한 수준의 정주환경 수준을 보이는 c 등급에는 완도, 영암, 화순, 강진, 일반적인 수준의 정주환경을 보이는 d 등급에는 담양, 장성, 그리고 좋지 않은 수준의 정주환경 수준에 있는 e 등급의 도시는 함평, 신안, 곡성, 진도, 구례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읍면동, 경찰서, 지파출소, 소방서, 소방파출서, 세무서, 우체국관서, 등기소로 구성되어 있는 공공행정 측면의 정주환경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매우 좋은 수준으로 나타난 a 등급에는 화순(3.68505), 좋은 수준을 보이는 b 등급에는 완도, 양호한 수준의 정주환경 수준을 보이는 c 등급에는 해남,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영광, 일반적인 수준의 정주환경을 보이는 d 등급에는 구례, 담양, 영암, 진도, 무안, 함평, 장성, 곡성으로 나타났다.

Table 8. Public administration sector Standard scores

도시	공공행정	등급	순위
담양	-0.44356	d	11
곡성	-0.61558	d	17
구례	-0.41488	d	10
고흥	0.15853	c	4
보성	0.01518	c	6
화순	3.68505	a	1
장흥	-0.09950	c	7
강진	-0.18552	c	8
해남	0.18720	c	3
영암	-0.47223	d	12
무안	-0.52957	d	14
함평	-0.52957	d	14
영광	-0.18552	c	8
장성	-0.58691	d	16
완도	0.35923	b	2
진도	-0.50090	d	13
신안	0.15853	c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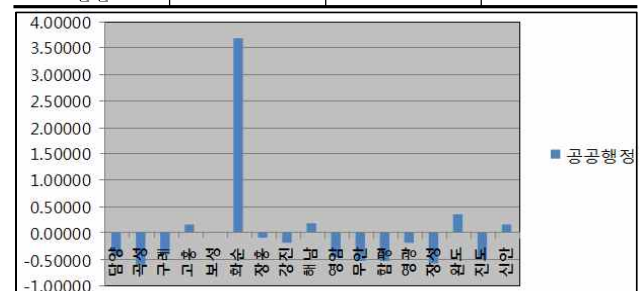


Figure 2. Public administration sector Ranking

Table 9. Education sector Standard scores

도시	교육	등급	순위
담양	-0.46728	d	11
곡성	-1.53262	e	17
구례	-1.20838	e	16
고흥	0.76018	b	4
보성	-0.16620	c	8
화순	2.17291	a	1
장흥	-0.30516	d	9
강진	-0.58308	d	15
해남	1.82552	a	2
영암	0.48226	b	6
무안	0.20435	c	7

함평	-0.86099	d	14
영광	0.82966	b	3
장성	-0.49044	d	10
완도	0.50542	b	5
진도	-0.58308	d	12
신안	-0.58308	d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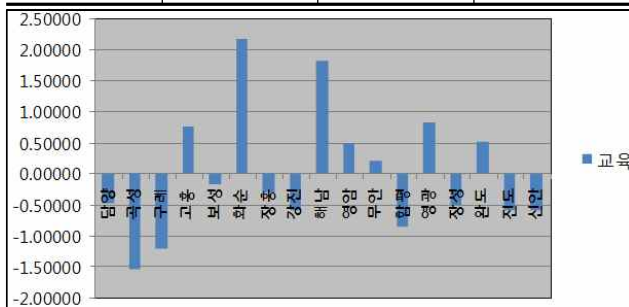


Figure 3. Education sector Ranking

셋째, 대학교, 전문대학,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로 구성되어 있는 교육 측면의 정주환경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매우 좋은 수준으로 나타난 a 등급에는 화순, 해남, 좋은 수준을 보이는 b 등급에는 영광, 고흥, 완도, 영암, 양호한 수준의 정주환경 수준을 보이는 c 등급에는 무안, 보성, 일반적인 수준의 정주환경을 보이는 d 등급에는 장흥, 장성, 담양, 진도, 신안, 함평, 강진, 좋지않은 수준의 정주환경 수준을 보이는 e 등급에는 구례, 곡성으로 나타났다.

넷째, 종합병원, 치과, 약국, 의원, 보건소 및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여성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로 구성되어 있는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측면의 정주환경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매우 좋은 수준으로 나타난 a 등급에는 화순, 해남, 좋은 수준을 보이는 b 등급에는 무안, 고흥, 영광, 양호한 수준의 정주환경 수준을 보이는 c 등급에는 영암, 완도, 함평, 일반적인 수준의 정주환경을 보이는 d 등급에는 담양, 보성, 장흥, 장성, 강진, 곡성, 신안, 진도, 좋지 않은 수준의 정주환경 수준을 보이는 e 등급에는 구례로 나타났다.

Table 10. Health & Social Welfare sector Standard scores

도시	보건의료/사회복지	등급	순위
담양	-0.27225	d	9
곡성	-0.86242	d	14
구례	-1.14198	e	17
고흥	0.81492	b	4
보성	-0.30331	d	10
화순	2.55438	a	1
장흥	-0.39650	d	11
강진	-0.76924	d	13
해남	1.65359	a	2
영암	0.13156	c	6
무안	0.93916	b	3
함평	-0.21012	c	8
영광	0.31793	b	5
장성	-0.64499	d	12
완도	0.00731	c	7
진도	-0.92455	d	16
신안	-0.89349	d	15

Table 11. Information & Communication sector Standard scores

도시	정보통신	등급	순위
담양	-0.53498	d	10
곡성	-0.77750	d	14
구례	-1.14128	e	17
고흥	0.92016	b	4
보성	-0.41371	d	12
화순	0.43511	b	5
장흥	-0.65624	d	13
강진	-0.17119	c	8
해남	-0.04993	c	7
영암	-1.02002	e	16
무안	-0.53498	d	10
함평	-0.77750	d	14
영광	1.16268	a	2
장성	-0.17119	c	8
완도	2.86034	a	1
진도	0.07133	c	6
신안	0.79890	b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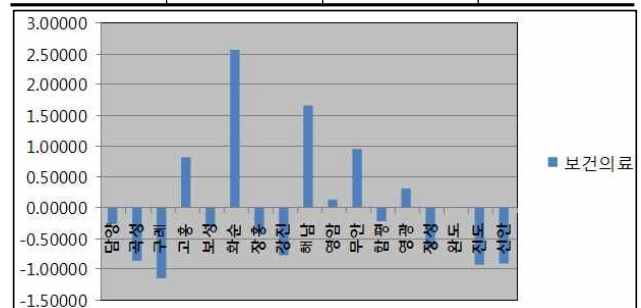


Figure 4. . Health & Social Welfare sector Rank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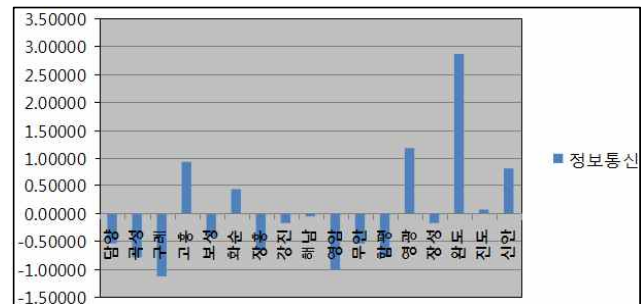


Figure 5. Information & Communication sector Ranking

다섯째, 우체국, 전화국, 신문사, 방송국으로 구성되어 있는 정보통신 측면의 정주환경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매우 좋은 수준으로 나타난 a 등급에는 완도, 영광, 좋은 수준을 보이는 b 등급에는 신안, 고흥, 화순, 양호한 수준의 정주환경 수준을 보이는 c 등급에는 해남, 장성, 강진, 일반적인 수준의 정주환경을 보이는 d 등급에는 담양, 무안, 보성, 장흥, 함평, 곡성, 좋지 않은 수준의 정주환경 수준을 보이는 e 등급에는 구례로 나타났다.

여섯째, 도서관, 박물관, 극장, 공연장, 볼링장, 골프연습장, 실내체육관으로 구성되어 있는 문화위락 측면의 정주환경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매우 좋은 수준으로 나타난 a 등급에는 화순, 해남, 좋은 수준을 보이는 b 등급에는 영광, 무안, 영암, 양호한 수준의 정주환경 수준을 보이는 c 등급에는 고흥, 완도, 장흥, 일반적인 수준의 정주환경을 보이는 d 등급에는 보성, 진도, 장성, 담양, 구례, 강진, 함평, 좋지 않은 수준의 정주환경 수준을 보이는 e 등급에는 신안, 곡성으로 나타났다.

Table 12. Cultural entertainment sector Standard scores

도시	문화위락	등급	순위
담양	-0.52031	d	12
곡성	-1.49176	e	17
구례	-0.57144	d	13
고흥	0.24662	c	6
보성	-0.31580	d	9
화순	2.29178	a	1
장흥	-0.00902	c	8
강진	-0.62257	d	14
해남	1.93388	a	2
영암	0.45114	b	5
무안	0.50227	b	4
함평	-0.98047	d	15
영광	0.86017	b	3
장성	-0.46918	d	11
완도	0.14436	c	7
진도	-0.41806	d	10
신안	-1.03160	e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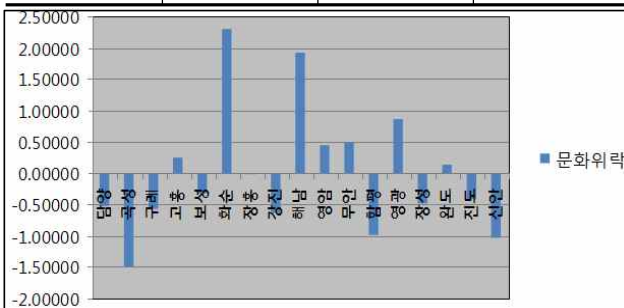


Figure 6. Cultural entertainment sector Ranking

(3) 정주환경의 종합성 실태

분석을 위한 변수의 선택과정에서 채택된 6개 요인을 종합하여 평균, 표준점수로 정리한 정주환경의 종합성 수준의 결과를 살펴보면, 매우 좋은 수준으로 나타난 a 등급에는 화순, 해남, 좋은 수준을 보이는 b 등급에는 고흥, 완도, 영광, 양호한 수준의 정주환경 수준을 보이는 c 등급에는 무안, 영암, 보성, 장흥, 일반적인 수준의 정주환경을 보이는 d 등급에는 신안, 담양, 장성, 진도, 함평, 좋지 않은 수준의 정주환경 수준을 보이는 e 등급에는 구례, 곡성으로 나타났다.

Table 13. Synthesis Standard scores

도시	정보통신	등급	순위
담양	-0.4256	d	11
곡성	-1.0478	e	17
구례	-1.0198	e	16
고흥	0.7190	b	3
보성	-0.0865	c	8
화순	1.8520	a	1
장흥	-0.1336	c	9
강진	-0.4315	d	12
해남	1.2664	a	2
영암	-0.0565	c	7
무안	0.2076	c	6
함평	-0.6795	d	15
영광	0.6659	b	5
장성	-0.4943	d	13
완도	0.6896	b	4
진도	-0.6180	d	14
신안	-0.4071	d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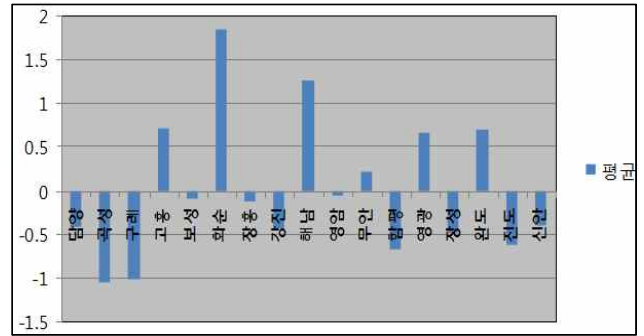


Figure 7. Synthesis Ranking

이상에서와 같이 사례 도시간에 도시생활환경지표의 측정 요인별 등급과 순위 분포를 통해 해당 도시별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결과를 해당 요인별로 사업화했을 때 상대적으로 다른 사례도시에 비해 상황이 매우 열악한 경우를 최우선 계획대상 사업으로, 열악한 수준의 상태인 경우는 우선 계획대상 사업, 그리고 일반적인 수준을 계속 대상사업으로 설정하여 도표화 했는데, 이러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화순과 해남은 매우 좋은 정주환경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화순은 광주광역시와 인접해 있어 광주광역시 개발의 파급효과 흡수와 인구 및 경제 규모 등 자체적인 도시 자생력이 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도시이고, 해남은 전남 서남부 지역의 거점도시로서 인구 및 경제규모가 큰 도시라는 점에서 이러한 도시 기반을 토대로 사회기반시설을 포함한 정주시설의 양적인 공급의 확대와 사회적, 행정적 틀이 어느 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지되어 온 것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구례와 곡성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정주환경의 개선과 편의시설의 확충이 매우 필요한 도시로 나타났으며, 도시 인구의 지속적 감소와 기반시설이 확충되지 못한데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유통금융과 교육 및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와 관련된 정주환경을 개선해 나가기 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이들 부문의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이 있을 때 도시계획 및 개발을 통해 정주환경이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본 연구는 전남지역의 읍급도시를 대상으로 정주환경을 분석하였으며, 정주환경의 분석 목적은 각각의 도시들을 국토공간상 또는 지역공간상에 체계있게 조직하여 도식체계의 효율적 성장을 유도하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통계적 변수로 사용한 것은 도시의 생활지표를 결정하는 도시지표 중 38개의 시설을 유통금융, 공공행정, 교육,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정보통신, 문화위락 등 6개 요인으로 분류하여 대표적인 도시성장 관련 지표인 도시지향적 요인과 어떠한 상관성이 있는 지를 살펴보고 각각의 도시들의 요인별 정주환경 수준을 파악하였는데,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주환경 요인에 포함된 변수들의 분류 적합에 대한 선정된 요인들은 지표들 사이의 응집력이 강하게 나타나며 각 지표들의 신뢰성도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해당 변수

값을 표현 하는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도시성장관련 지표인 인구와 도시생활환경지표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교육과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유통금융, 문화위탁과의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인구가 증가할수록 이 부분에 대한 기반확충 및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표준점수로 정리한 정주환경의 종합성 수준의 결과를 요인별로 등급과 순위를 정해 해당 도시별 특성을 파악한 결과 화순과 해남은 매우 좋은 정주환경 수준을 보였고 구례와 곡성은 상대적으로 정주환경의 개선과 편의시설의 확충이 매우 필요한 도시로 나타났다.

넷째, 도시별로 개선이 필요한 정주환경 요인을 정리하면 유통금융부문은 곡성, 구례, 함평, 진도, 신안, 교육부문은 곡성, 구례,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부문은 구례, 공공행정부문은 곡성,장성, 정보통신부문은 구례, 영암, 문화위탁부문은 곡성, 신안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건전한 정주환경의 정립을 토대로 지속적인 도시성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문의 개선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함께 선계획-후개발이나 기반시설연동제와 같은 도시계획기법의 적용이 필요하며 향후 도시계획 수립 및 정책입안 과정에서 도시의 정주환경을 개선해나가는 노력이 병행 추진되어야 하겠다.

참고문헌

1. 신도철, 한국인의 삶의 질 대 연구: 주관적 지표에 의한 분석, 정경문화, 1981.
2. 남궁근, 우리나라 지방정부 지출수준의 결정요인분석:시·군·자치구의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1994.
3.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도시계획론, 보성각, 2000.
4. 임희섭, 삶의 질의 개념적 논의, 한국행정학회, 1996.
5. 최준호,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삶의 질」에 대한 비교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 2001.
6. 박준기, 계량적 인구추정모형의 정립과 검증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7. 정준금, 김도희, 지방정부 '삶의 질 행정'의 실태와 과제:울산광역시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2008.
8. 진라남도통계연보, 2014.
9. Gurr, T., Why Men Rebel?,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1.
10. Feierabend et al., Social Change and Political Violence:Cross National Patterns, New York, 1971.
11. Cantrill, A. H. and C. W. Roll Jr., The Hopes and Fears of American People, in studies conducted by the Institute of International Social Research, 1972.
12. Liu, B.C., Quality of Indicators in Us Metropolistan Areas:A Statistical Analysis, Nes York, 1976.

접수일자 : 2016. 01. 10
 심사완료일자 : 2016. 02. 20
 게재확정일자 : 2016. 02. 23